



소방당국이 11일 오후 광주서구 차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건설 도중 난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구조물 붕괴 사고 현장에서 전해물에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는 작업자들을 수색 구조하고 있다. /뉴시스

## 예산난·부도에 매몰사고까지... 광주대표도서관 수난

기초공정 지연과 예산 부족, 시공사 부도로 수 차례 공사 중단 위기에 놓였던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이번엔 작업자 매몰사고까지 발생했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서구 상무지구 내 옛 상무소각장 1만200㎡ 부지에 연면적 1만 1286㎡,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었다.

사업 기간은 당초 2017년 말부터 2022년 말까지 5년으로 잡혔으나 각종 약제가 잇따르면서 수차례 변경 끝에 2026년 5월로 늦춰진 상태다. 5년 프로젝트가 9년 프로젝트로 변경된 셈이다.

공정 지연·예산난·시공사 부도로 완공시점 2023→2026년 연기

공정률 70% 안팎... 문화재생산업도 중투 탈락으로 차질 겹치름

국비 157억원과 시비 235억원 등 총 392억원을 투입해 복합문화커뮤니티타운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서관 내부에는 멀티미디어실·열람실·다목적실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도서관은 2019년 11월 국제공모를 통해 세르비아 유명작가의 작품이 선정되면서 일찌감치 주목받기도 했다.

그러나 예산과 불황이 발목을 잡았다.

2022년 9월 착공해 2023년 말 완공 예정이었지만 예산 부족과 시공사 부도, 경제성 부족으로 3차례 공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면서 완공 시기가 2026년 상반기로 미뤄졌다. 이 과정에서 건설 자재가 압류되는 일도 빚어졌다. 현재 공정률은 70%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조한 공정률과 함께 관련 문화재생산업

이 중앙투자 심사에서 낮은 비용편익비율(B/C)로 반려돼 당초 계획이 불투명한 것이 아니냐는 질타를 받기도 했다.

당시 김나운 의원은 "반복 지연은 단순한 공정문제가 아니라 행정신뢰 문제"라며 "시는 철저한 사업준비와 추진으로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58분께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공사구조물이 붕괴돼 작업자 4명이 매몰돼 소방당국이 긴급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기동취재부

광주대표도서관 공사현장 붕괴 사고는 지지대 없는 특허 공법으로 옥상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다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광주 서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옥상층에서 시작돼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지며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건물은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지지대 없는 특허 공법' 광주대표도서관, 옥상 타설 중 붕괴

총 높이는 약 15m다.

시공사 측은 옥상 콘크리트 타설을 지지하는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할 수 있는 특허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역시 별다른 지지대 설치 없이 옥

상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사고는 11일 오후 1시58분께 광주서구 차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작업자 4명이

매몰됐고, 1명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위중한 상태다.

광주대표도서관은 광주시가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총 사업비 516억원을 들여 연면적 1만2386㎡,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소각장 부지에 복합문화공간을 조성 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뉴시스

## '무한·청정·안전' 꿈의 에너지 '인공태양' 나주에서 뜬다

나주시, '글로벌 핵융합 에너지 선도도시' 도약

'무한, 청정, 안전' 인류의 꿈의 에너지 지원인 핵융합 기술 선점을 위한 국가 핵심 프로젝트인 '인공태양 연구시설' 부지가 전남 나주로 최종 확정됐다. 나주시는 인공태양 연구시설 구축 확정을 통해 에너지 수도를 넘어 대한민국 '에너지 자립국 도약' 전략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핵융합 에너지 선도 도시로 도약한다는 포부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한 '핵융합 핵심기술(인공태양)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부지로 최종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공모 수행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3일 전남 나주를 사업 부지 1순위로 선정했으며 이에 대한 전북도의 이의제기를 10일 불수용처리하여 나주시가 인공태양 연구시설 구축 부지로 최종 확정되었다.

나주시는 부지 선정을 위한 한국연구재단 평가 항목에서 전체 '매우 우수' 등급을 받으며 이미 준비된 최적 지임을 입증했다.

나주는 해일·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내륙 지대, 기상청 관측 이래 단 한 건의 지진 발생이 없었던 화강암 기반의 부지 안전성과 확장성,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을 연계한 연구 인력 양성 인프라, KTX·나주역, 무안국제공항 등 편리한 국내외 교통망을 갖춘 연구시설 최적지로 평가받았다.

12만 시민의 지지 서명과 시도민 유치추진위원회 활동, 광주·전남 국회의원 전원외 나주 유치 결의문 발표 등 전방위적 협력 또한 유치 경쟁에서 승리한 나주시는 한국에너지공대(켄텍) 설립 기본계획 내 '국가 대형 연구시설 설립' 반영을 시작으로 전라남도와 국가 핵융합 아젠다(agenda)를 가장 먼저, 앞장서 이끌어왔다.

특히 민선 8기 출범 후 핵융합 8대 핵심기술 중 하나인 495억 원 규모 '핵융합실증로용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 사업'을 컨테에 유치해 핵융합 연구 인프라 선두 주자로 발돋움했다.

또 인공태양 포럼 개최, 핵융합 기업 및 한국가속기플라즈마협회와의 업무협약, 인공태양 연구시설 실무위원회·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정부·국회·산학연 간 활발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오며 2025년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로 반영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10월 15일 과거부 부지 공모 발표 이후엔 인공태양 추진단을 구성, 전라남도도 '원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11월 13일 유치계획서 과거부 제출, 11월 21일 최종 발표를 거쳐 12월 최종 부지 확정까지 한 달 반의 촉박한 시간 속에 값진 결실을 이뤄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인공태양 연구시설 나주 유치는 12만 나주 시민과 340만 광주·전남 시도민의 뜨거운 열정이 이뤄낸 결실"이라며 "공모 전부터 이어진 시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높은 주민 수용성은 평가 과정에서 경쟁 도시를 앞서는 결정적인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윤 시장은 "인공태양 연구시설은 단순 나주를 위한 연구시설이 아닌 광주·전남 과학기술 산업을 혁신하고 빛나는 혁신도시에 이어 국가균형발전의 심장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나주가 에너지 자립국 도약을 견인하는 글로벌 핵융합 에너지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2면에 계속) 나주이명열 기자

Self **참숯구이**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 약품을 쓰지 않은 장어만 판매

**영광 법성포 청산양만 명품 장어**

**無항생제**  
**無균**  
**無소독제!**

1일 18회 순환여과 및 미생물 배양 청정시스템으로 국내산 청정 명품장어

**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우수)  
해양수산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HACCP) 적용지정업소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 AQ-0026

**무항생제**  
(NON ANTIBIOTIC)  
해양수산부

인증기관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15-18-0001호

**전국 500여 양만장중 무항생제 지정업소 단 1곳**  
**전국 500여 양만장중 HACCP 지정업소 단 3곳**

**예약문의 T. 062)233-9592**

**광주 동구 내남동 330-3(월남지구 호반2차 옆 슬바우주유소 옆)**

저희 장어명가 청산 장어는 국내유일 무항생제 인증과 해썬(Haccp)으로 인증된 양어장에서 "무항생제, 무균, 무소독제"로 직접키운 명품장어입니다. 무항생제 장어 최고 품질!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에서 모시겠습니다.